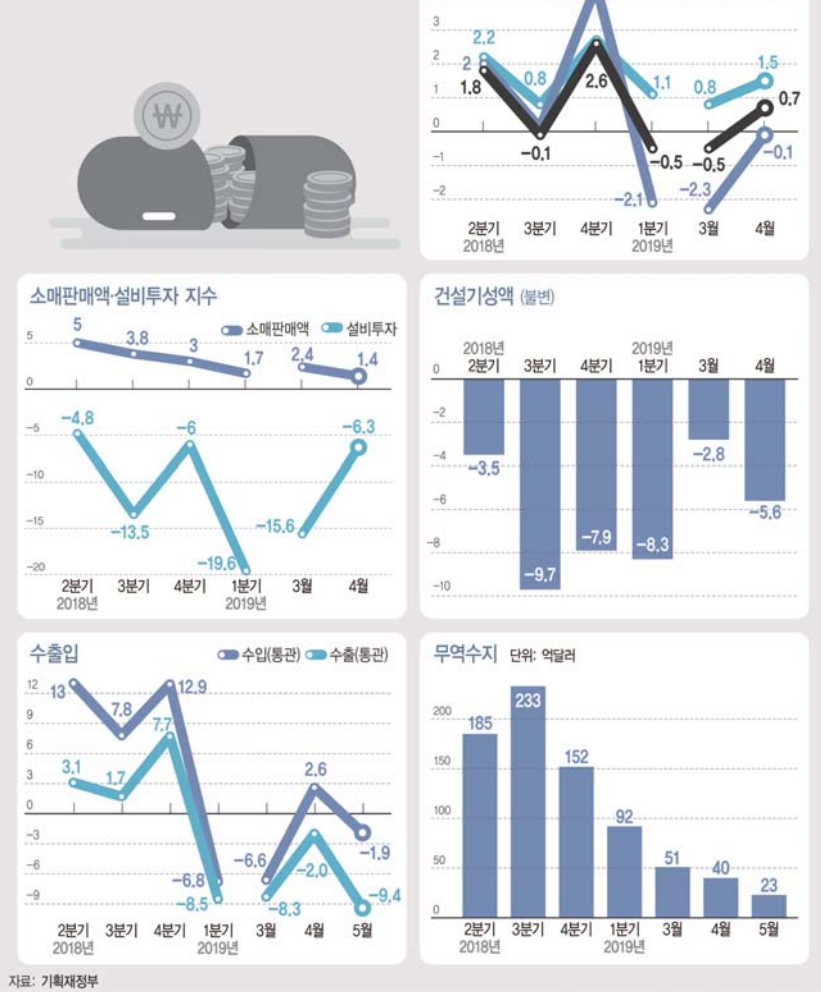


KDI, 3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

KDI 경제동향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KDI '경제동향' 5월호 발간...내수 둔화

"생산 소폭 확대...수출 중심 경기 부진 지속"

평가한 것은 지난 11월부터다 KDI는 지난해 10월까지 경기가 개선 추세로 봤지만 지난해 11월 '둔화'를 처음 언급했다. 이후 지난 4월부터는 '부진'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KD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업일수 변동에 감안하면 생산 증가가 추세적이라고 평가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4월 전산업 생산은 조업일수가 하루 증가하면서 광공업생산의 감소폭이 축소됐다. 특히 반도체(2.5%→8.4%)와 자동차(-0.9%→8.3%)를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전월(-2.3%)보다 감소폭이 축소된 -0.1%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0.6%)의 감소폭이 축소됐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5%), 정보통신업(3.5%) 등이 확대되면서 전월(0.8%)보다 0.7% 증가한 1.5%를 기록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 증가율도 1분기 평균치인 1.7%보다 증가 폭이 축소된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수입승용차 판매 부진으로 내구재가 1.2% 감소했으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는 각각 1.0%와 2.9% 증가했다.

4월 설비투자는 6.3% 감소했다. 기계류가 전월(-20.1%)보다 감소폭

(-11.8%)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전월(-15.6%)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4월 건설기성은 건축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월(-2.8%)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5.0%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 수주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22.6%)과 유사한 23.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5월 수출은 세계경기의 둔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9.4%를 기록하며 전월(-2.0%)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자동차(13.6%)는 증가했으나 반도체(-30.5%), 석유화학(-16.2%) 및 무선통신기기(-32.2%) 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5월 수출물량지수는 3월(-3.3%)의 감소에서 2.4% 증가로 전환됐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62억 3000만 달러)보다 축소된 22억 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KDI는 금융시장과 관련해 '미·중 무역갈등 심화, 세계 증시 하락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와 국내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갈등 및 유럽 정치 불안 등 하방위험이 전월에 비해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3개월 연속 국내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내수가 둔화하고 수출이 위축되면서 국내 경기가 활기를 보이지 못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KDI는 10일 공개한 'KDI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으나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가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경매 물건 쌓여간다...주거시설 진행건수 ↑ · 낙찰율 ↓

"경기 침체에 '갭투자' 등 경매 물건 늘어"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버티지 못한 '갭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에 물건을 쏟아내면서 주거시설 경매 진행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1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이 발표한 '2019년 5월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경매 건수는 총 1만1136건으로 4월 1만3277건에 비해 1.7% 감소한 반면 주거시설 경매는 눈에 띄게 늘었다.

5월 주거시설 경매는 5261건을 기록했다. 올해 4월 5006건을 기록하며 2015년 4월 이후 4년만에 5000건을 돌파한 바 있다.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진행건수가 두달 연속 5000건을 넘은 것은 지난 2015년 3~4월

이후 처음이다.

2009년까지 1만건을 넘었던 주거시설의 진행건수는 2016년부터 3000건대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4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더니 결국 5000건대에 안착했다.

전체 진행건수에서 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5월 주거시설 경매건수 비중은 47.2%로 4월 44.2%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다. 2006년 12월에 기록한 48%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균 30%대를 기록했던 주거시설의 비중은 지난해 8월부터 매월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시설의 비중이 50%를 넘긴 시점은 2006년 8월로, 당시 비중은

50.7%였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갭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수백개의 물건들이 한꺼번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작년 하반기 이후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경매로 나오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건수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주거시설 경매 낙찰건수는 1838건으로 지난해 1754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낙찰율은 35.04%에서 34.94%로 다소 떨어졌다.

평균 응찰자수는 5.08명에서 4.94명으로 줄었고 낙찰가율은 81.08%에서 80.91%로 떨어졌다.

장 팀장은 "경매시장 참여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건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낙찰율과 낙찰가율은 낮아진다"며 "경매시장 물건은 늘었는데 응찰자수는 상대적으로

줄어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추세는 업무·상업시설, 토지 경매를 포함한 전체 경매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달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지난 달에 2개월 연속 1만1000건을 넘는 반면 낙찰건수는 3668건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하면서 낙찰율은 32.9%로 떨어졌다.

월별 법원경매 낙찰율이 33%를 밑돈 것은 지난 2013년 10월(32.3%) 이후 6년여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6월 진행건수도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하락한 67.3%를 기록하며 다시 60%대로 밀렸다.

4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넘었던 세종시의 경우 90.4%로 하락했으며, 서울도 지난해 90.1%에서 이달 89.9%로 뒷걸음질쳤다. 경북의 낙찰가율은 31%로 지난 2017년 12월 28.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작년 역대 최대

- #.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 등 77명은 렌터카 및 당일 카셰어링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
- #. 사고당시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A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해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 #. 보험설계사 A씨와 지인, 보험계약자 등 10여명은 공모해 약 40건의 다수인이 동승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지급이 쉽게 되는 특정 진단명이 기재된 허위진단서를 통해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으로 전년(680억원) 대비 9.3% 상승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윤

이다. 또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 조사, 적발 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사전예방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7982억원...역대 최고수준 자동차 수리비·영업배상책임보험 등 허위청구도 증가

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리비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허위청구도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 추세 및 원인 등을 진단할 계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피해를 초래하므로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나 보험회사의 보험법률진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올반 찰 핫도그 인기 '핫'...1년새 400만개 판매

출시 1년 만에 400만개 판매

신세계푸드는 가장간편식 올반이 출시한 '찰 핫도그'가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400만개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찰 핫도그의 인기는 최근 냉동 핫도그 열풍과 함께 1000원대 가격으로 가성비를 충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KBS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어린이 출연진의 간식으로 올반 찰 핫도그가 소개된 후 하루 판매량이 방송 전보다 약 29.4%,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올반 찰 핫도그는 찹쌀을 넣어 쫄깃한 식감을 높인 빵에 모짜렐라 스트링 치즈와 고품질 소시지를 위아래 나눠 넣어 두 가지 맛을 한번에



즐길 수 있다.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쉽게 조리 가능하다.

신세계푸드는 올반 찰 핫도그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반 모짜렐라 찰 핫도그와 올반 크런치 찰 핫도그 등 2종을 신제품으로 출시했다. 뉴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